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중남미 권역



일종의 책갈피 - 잊지 못할 리마의 추억

김성희

두 번의 경유와 하루를 꼬박 날아 발길이 닿은 이곳은 대한민국의 반대편. 남미로의 배낭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출발점으로 점 찍는 도시인 페루의 수도 리마(Lima)에 도착했다.

도로 위에는 사람들이 잔뜩 매달려 있는 승합차와 질주하는 오토바이들로 가득했고, 꽃샘추위로 아직은 한참 서늘했을 한국의 3월에 비해 120%의 습기를 머금은 맹렬한 더위와 정체 모를 향신료 향은 내 코를 자극했다.

길을 걷다 보면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지 궁금한 커다란 배낭과 한 손에는 지도를 든 여행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런 여행자들과 눈이 마주칠 때면 서로 이름도, 국적도 모르지만 ‘우리 동지야!’라는 무언의 신호와 함께 사르르 웃으며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곤 했다.

남미로 떠나오기 전, 한 달 먼저 남미 일주를 마친 지인이 나에게 조심하라며 이야기해 준 것이 있었다. 바로바로 ‘고산병’. 그는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두 번이나 할 만큼 건강했고, 체력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본인조차 고산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으로 인해 산을 오르다 졸도했다고. 그래서 꼭 나에게 소로체필이라는 빨간색 캡슐 알약과 코카잎 차를 항상 챙기라며 걱정이 잔뜩 묻은 목소리로 조언을 해주었다.

내 여행의 첫 발걸음이 향한 곳은 해발 3,000m가 넘는 도시이자 트레킹의 성지인 와라즈였다. 리마에서 와라즈로 넘어옴과 동시에 이상하게 머리가



탁한 느낌과 함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감기몸살이 오듯 몸도 으슬으슬하니 컨디션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무시무시하다던 고산병이 내게도 찾아오고 만 것이다...! 다행히(?)도 나 같은 여행자가 적잖이 있었기 때문일까, 호스텔 바로 앞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던 상인이 소로체필도 팔고 있다는 말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빈속이지만 급하게 물과 함께 넘긴 약의 위력은 어마어마했다. 호스텔로 돌아와 한숨 자고 일어나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멀쩡한 컨디션으로 회복! 기운을 차리고 나니 몸의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가장 솔직한 배에서는 이제 뭘 좀 먹을 차례라며 꼬르륵, 하고 소리를 냈다. 남미에서는 뭘 먹어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려나. 감이 전혀 오질 않지만 일단 거리로 나서 보기로 한다.

낮선 음식에 도전하는 일이 꽤나 즐거운 내게 ‘현지 에 왔으면 현지식을 먹어 줘야지!’ 하며 넘치는 패기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름 모를(사실은 읽지 못할) 음식점으로 쑥 들어갔다.

뜬금없는 외국인 손님에 적잖이 당황한 것처럼 보이는 식당 주인과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너무 낮선 현지 식당이라 멀뚱히 서있는 나에게 먼저 용기를 낸 식당 주인이 앉으라며 의자의 등 받침대를 툭툭 쳤다. 그제야 굳어 있던 나의 다리를 움직여 자리에 착석했다. 딱히 메뉴판이랄 것이 없는 아주 작은 식당에서 벽에 걸린 팻말의 글자를 천천히 읽어보았다. #@\$Pollo!@\$\$. Pollo... 어, 뽕요?

다른 건 몰라봐도 뽕요는 알아봤다. 호스텔을 나서

기 전 잠시 스쳤던 한국인 여행객이 ‘음식점에서 뭘 먹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싶으시면 뽕요를 시키세요! 뽕요는 어디에나 있고, 치킨이거든요.’하며 생존 꿀팁을 알려주었기에. 그렇게 주문하게 된 나의 첫 남미 음식. 5솔, 한국 돈으로 약 1,500원 밖에 하지 않는 착한 가격의 미지의 음식을 설렌 마음으로 기다렸다.



5분이 채 되지 않아 식당의 주인이 직접 들고 온 음식은…! 낯선 향신료의 정체였던 고수가 잔뜩 들은 초록색의 고수 수프와 양념 범벅의 뽕요. 그리고 찢감자 한 덩이와 렌틸콩이 한가득인 접시가 나의 식탁 앞에 놓였다.

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음식들이 식탁을 채우고 있었다. 그렇다고 무너질 도전정신이 아니지! 하며 한입 가득 밀어 넣은 음식의 맛은…! 소금을 한 주먹 넣은 것 마냥 짜고 시고 맵고 달고…. 헛바닥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맛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 먹다가는 고산병이 아닌 고혈압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건강 염려증에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멧쩍은 웃음과 함께 식당 문을 나섰다. 미안해요, 식당 주인님. 남미 음식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식당을 나와 후덥지근한 거리를 걷자니 갈증이 나

던 찰나. 저 앞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짜디짠 실패로 끝난 나의 뽕요 시도기에 배도 채워지지 않았겠다, 입가심으로 딱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주문한 아이스크림은 마찬가지로 무슨 맛인지 모르겠으나 무척 시원했고 달았던 기억이 난다.

다음날 아침, 전날 예약해 둔 파룬호수 트레킹을 위해 아침 일찍 몸을 일으켜 나갈 채비를 했다. 산을 타본 경험이 없는 초심자에게도 추천할 만큼 쉽고,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등산 코스를 오르면 끝내는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웬걸. 차로만 오르는 길도 무지 험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하늘까지 닿는 거 아냐? 싶을 정도로 끝도 없이 올랐다. 엉덩이가 슬슬 저려 올 때 즈음 도착한 파룬호수 등산길의 초입. 우리가 올라야 한다는 돌무더기의 산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저거? 저기를 올라야 한다고? 길이 없는데?

태평하게 동네 뒷산 정도로 생각한 것이 나의 오산이었다. 안 그래도 고산병 때문에 숨쉬기도 벅찬 데다가 여기저기 튀어나온 돌부리를 발판 삼아 네발로 기어가는 미친 산행은 처음이었다.

낙오는 절대 안 된다는 일념 하에 터지는 헉헉 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오르고 오르다 뒤를 돌아보니, 그래도 꽤 올라왔다 싶은 높이까지 도달했다. 고지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조금만 더 힘내 보자 하는 용기가 솟았다. 아차! 하며 발을 헛디디면 골로 갈 것 같다는 두려움은 둘째 치고.





어느 정도 올랐을까. 이윽고 뷰 포인트에 도착했다는 표지판을 괜히 원망스럽다는 듯 가볍게 한번 툭툭 치고, 힘겹게 올라온 만큼 쉽게 내려가지 않겠노라며 둘러 본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인가?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비로운 에메랄드빛 호수가 눈 한 가득 담겼다.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사람 한정 이야기가 아니었다. 연신 우와, 하는 감탄사만 내뿜으며 내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에 일순 나의 마음을 빼앗겼다.

서울 도시 한복판의 매캐한 매연과 뻣뻣한 인파로 가득했던 회색 도시를 벗어나 내가 보고 싶었던 풍경이 이거잖아. 그저 아무 말 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용감하게 떠나오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이 풍경을 나는 오랫동안, 아마 평생을 잊지 못하리라.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